

## Review

명저산책

## 후이 마우루 마리니의 『종속의 변증법』

강경희

## 1. 망명길에서 책을 쓰다

후이 마우루 마리니(Ruy Mauro Marini)의 『종속의 변증법』(Dialéctica de la Dependencia)은 1973년 발간된 후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지식인으로 부터 많은 찬사와 비난을 받으며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종속이론의 한 분파인 상파울루 학파는 ‘종속’이 특정 조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므로 ‘종속이론’과 같은 일반화의 시도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는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가 주도하는 상파울루 학파는 주로 베버주의적 관점과 사회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저발전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종속이론의 한 분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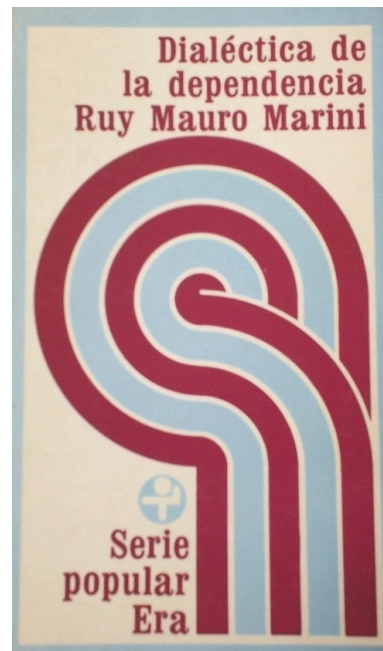
반면, 마리니 지지자들은 『종속의 변증법』에서 소개된 노동초과착취론, 아류제국주의론(subimperialismo) 등이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의 발전에 중대한 분기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은 마리니를 비롯해 테오토니우 두스 산투스, 바니아 밤비라, 안드레 군더 프랑크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주로 정치경제학 분석방법을 통해 종속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들 가운데 마리니의 정치경제학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분석방법을 이론적, 방법론적 도구로 활용해 라틴아메리카 종속경제의 재생산과정을 독창적으로 재구성해냄으로써 마

르크스주의 종속이론에 과학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리니 정치경제학의 형성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그의 이론이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현대정치사를 직접 관통해온 그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쿠바혁명을 바라보며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이론을 구상했고, 브라질 군부쿠데타를 체험하며 라틴아메리카의 독재와 민주주의 이론을 만들었으며, 멕시코 틀라텔롤코 학살사건에서는 학생운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 칠레로 망명했고, 칠레에서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 집권기 정치활동에 참여하다가 피노체트 군부쿠데타가 발생하자 다시 멕시코로 망명했다. 즉, 마리니는 라

틴아메리카에서 정치적, 이론적 논쟁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대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자신의 지적, 학문적 생산 활동을 펼쳤다.

마리니의 정치경제학 수립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은 그의 이론들이 20여 년 동안의 오랜 망명생활 중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칠레 망명 중 마리니는 1970년 인민연합과 살바도르 아옌데의 선거 승리가 만들어낸 진보적인 지적 분위기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좌파 지식인과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는 칠레대학교의 사회경제연구센터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오랜 친구인 두스 산투스와 밤비라를 만나 브라질에서 진행하던 공동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고 프랑크, 마르타 하네케르, 레지스 드브레, 오를란도 카푸토, 하이메 오소리오 등과 함께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연구센터 연구진은 1973년 피노체트 군부쿠데타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의 확립을 목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 시기 마리니는 역작인 『종속의 변증법』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후 칠레에서 쿠데타가 발발하자 마리니를 비롯한 사회경제연구센터 연구진은 멕시코로 활동무대를 옮겨 멕시코국립대학교 정치사



『종속의 변증법』

(출처: <http://cipec.nuevaradio.org>)

회학대학 라틴아메리카연구센터에서 다시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을 지속해나갔다.

이처럼 마리니의 망명생활은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웠겠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라틴아메리카의 현안을 논의하고 비판적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마리니는 스스로 “비판적 사상은 세계와 라틴아메리카 문제에 대한 절대적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상 속에서 최선의 것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마리니는 “유럽과 미국에서 출현한 패권적 이론의 개입을 멀리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종속자본주의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연구보다는 집단적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리니가 폐쇄된 연구실에서 벗어나 수많은 학문적 동지들과의 오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것을 재발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망명생활이 준 우연한 선물은 아니었을까?

## 2. 『종속의 변증법』에 대하여

마리니의 『종속의 변증법』은 1973년 멕시코의 에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두 개의 장(1장 종속의 변증법, 2장 종속의 변증법에 관하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여섯 개의 절(1절 세계시장으로의 통합, 2절 부등가교환의 비밀, 3절 노동초과착취, 4절 종속경제의 자본회전, 5절 산업화과정, 6절 새로운 악순환의 고리)로, 그리고 2장은 두 개의 절(1절 국제경제에서 두 시기, 2절 자본주의발전과 노동초과착취)로 나뉘어있다. 이 책의 저술 목표는 마르크스 『자본론』의 일반이론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종속자본주의의 재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에 적합한 새로운 추상적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르크스 이론 외에도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의 제국주의론, 레닌의 불균등결합발전론, 프랑크의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이행론, 폴 바란과 폴 스위지의 독점자본론과 저발전이론 등이 마리니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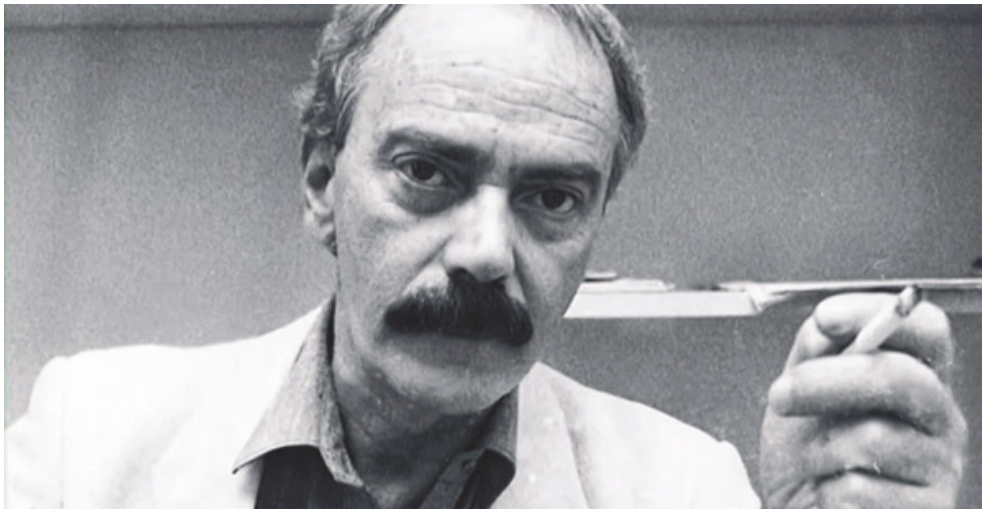
마리니는 『종속의 변증법』 서두에서 마르크스주의 일반이론을 라틴아

메리카라는 구체적 현실에 적용할 때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편향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스탈린주의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라틴아메리카 공산당의 교조주의적 편향이다. 이 편향은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동일시하거나 혼동할 때 나타난다. 즉, 경험적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추상적 일반이론을 그대로 수용했을 때 교조주의적 편향이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주로 사회학적 연구방법에서 나타나는 절충주의적 편향이다. 이 편향은 추상적 일반이론을 통해 경험적 현실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해 방법론적, 개념적 엄밀성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방법론적, 개념적 엄밀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교조주의적 편향이라면 방법론적, 개념적 엄밀성의 결여는 절충주의적 편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마리니의 『종속의 변증법』은 교조주의와 절충주의라는 두 개의 편향과 거리를 두면서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일반적 이론과 경험적 현실 간의 변증법적 결합을 모색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종속의 변증법』 1장 1절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에서 마리니는 “저발전은 발전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의 추론방식을 포기하고 라틴아메리카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세계시장에 통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마리니는 “식민지의 상황과 종속의 상황은 동일하다”라는 프랑크 주장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두 상황은 연속성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했다.

이론적 추론방식을 탈피하고 경험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려는 마리니의 역사주의적 관점은 『종속의 변증법』 1장 5절에서도 나타난다. 이 절에서 마리니는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CEPAL)의 발전주의 이론과 수입대체산업화 개념을 비판했다.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는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국내시장을 확대하면 완전한 경제적 ‘자율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리니는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가 1차 상품 수출경제 기반 위에서 확립된 라틴아메리카의 ‘산업화’라는 역사적 경로와, 라틴아메리카의 수입대체산업화가 중심부 국가의 자본재 수입에 의존한다는 외부 규정성을 과소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종속의 변증법』뿐 아니라 마리니의 모든 연구를 관통하는 핵심개념

후이 마우루 마리니 (출처: <http://www.ungs.edu.ar>)

은 노동초과착취이다. 마리니는 세계 자본주의는 위계적이고 독점적이며 불평등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속된 지역(국가)에서 중심부 지역(국가)으로의 가치이전은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심부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기술발전을 통해 상대적 잉여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반면, 종속 국가의 자본축적 패턴은 노동초과착취를 통해 달성된다는 것이다. 즉, 마리니는 노동초과착취가 종속자본주의 축적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본다.

마리니의 노동초과착취 개념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분석한 바 있는 상대적 잉여가치와 절대적 잉여가치 개념을 라틴아메리카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마리니는 우선 상대적 잉여가치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현된 착취형태로, 절대적 잉여가치를 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착취형태로 정의하다. 두 번째의 착취형태는 다시 노동시간 연장, 상응하는 임금인상 없는 노동강도의 증가, 노동자의 소비자금 축소(노동자 소비를 한계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라는 세 형태로 구분한다. 마리니의 노동초과착취 개념은 노동력 가격이 노동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리니는 종속 국가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편입이 중심부 국가에게는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에서 상대적 잉여가치로의 이행이라는 질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노동초과착취를 통해 가까스로 자국의 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리니의 노동초과착취 개념이 종속자본주의의 ‘과학기술적 정체’를 의미한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종속자본주의 저발전은 발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팽창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산물이라는 고유한 특징을 갖는 것이다.

『종속의 변증법』에서 제기한 노동초과착취 개념은 비판과 반비판을 거듭하며 후속 연구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되어갔다. 마리니의 대표 연구로는 아류제국주의에 대해 분석한 『저발전과 혁명』(1969), 칠레 망명 생활 경험을 회고한 『개혁주의와 반혁명. 칠레에 대한 연구』(1976), 『종속의 변증법』의 후속 논문인 「종속경제의 자본회전」(1979)과 「특별잉여가치와 자본축적」(1979), 『칠레의 자본 재생산 패턴』(1982),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와 통합』 등이 있다.

### 3. 마리니의 생애와 사상

마리니(1932-1997)는 브라질 출신의 정치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국제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마리니는 대학 졸업 후인 1958년 프랑스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파리고등 정치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았다. 또한, 프랑스 유학생할 중 마리니는 유럽의 식민지 반대운동과 제3세계주의자의 정치적 저항에 대해 관찰할 수 있었다.

귀국 후, 마리니는 1961년 마르크스주의 혁명단체인 노동자정치에 참여했다. 노동자정치는 브라질공산당의 노선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신좌파 조직이다. 신좌파에 따르면, 브라질공산당이 주장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은 부르주아지의 취약성으로 인해 실제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적용된 바 없으며, 민중투쟁은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신좌파는 라틴아메리카가 봉건제의 지속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투와 취약한 부르주아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신좌파의 주장은 1920

년대 페루의 마르크스주의자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의 영향을 받았다. 마리아테기는 제국주의 침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부르주아지의 취약성과 무능력을 오래전에 지적했다. 라틴아메리카 부르주아지는 제국주의 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산업화와 민주주의혁명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의 산업화와 민주주의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 마리아테기의 주장이다. 신좌파의 사상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으로 발전했으며, 마리니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62년 마리니는 새로 설립된 브라질리아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 대학에서 두스 산투스와 밤비라를 만났고, 이들과 라틴아메리카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목표로 마르크스의 『자본론』 강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는 후에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의 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브라질리아대학교는 1964년 브라질 군부쿠데타 직후 폐쇄되었고, 마리니와 동료들은 해군정보부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기도 했다. 이듬해 마리니는 연방법원 판결로 석방되었으나, 다시 체포될 위기를 맞아 멕시코대사관으로 피신해 멕시코 망명을 신청했다.

멕시코로 망명한 마리니는 멕시코대학원(Colegio de México)의 국제연구센터에서 1969년까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마리니는 1968년 툴라텔콜코 학살사건 발생 직후 브라질 학생운동에 대한 글을 발표하면서 멕시코 정부의 압력을 받아 이듬해 칠레로 망명했다.

칠레에서 마리니는 좌파혁명운동(MIR)의 당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1972년에는 좌파혁명운동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기관지인 『마르크스주의와 혁명』 발행에 참여했다. 또한 1973년 아옌데 정권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칠레대학교 사회경제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일했다. 이 시기 『종속의 변증법』, 러시아·중국·베트남 혁명에 대한 논문, 라틴아메리카 역사적 특징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연구 성과는 쿠데타 직후 군부세력이 폐기해버렸다.

피노체트 쿠데타가 발발하자 마리니는 파나마를 거쳐 멕시코로 다시 망명해 멕시코국립대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대부분의 논문과 저서는 이 대학교의 라틴아메리카연구센터에서 연구하면서 만들어졌다. 1974년에 마

리니는 『정치일지』라는 잡지를 창간했고, 1977년 라틴아메리카노동운동정보·문서·분석센터를 창립해 1982년까지 이끌었다.

1979년 브라질 정부의 정치적 사면과 함께 마리니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오가며 연구 활동을 진행했고, 암으로 사망하기 1년 전인 1996년이 되어서야 브라질로 영구 귀국했다. 그러나 브라질 학계의 분위기는 쿠데타 이전 및 1960년대와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활발한 논쟁의 시기와는 사뭇 달랐다. 신자유주의 영향이 지배적인 대학의 학문풍토, 언론매체의 독점,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더딘 후퇴 등은 마리니의 연구 활동 공간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었다.

#### 4. 모국에서 환영받지 못한 연구자, 마리니

마리니의 『종속의 변증법』은 브라질보다 멕시코 및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더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마리니는 자신의 책과 논문 대부분을 포르투갈어보다 스페인어로 저술했고, 모국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 첫 번째 이유는 1964년 쿠데타로 집권한 브라질 군사정권이 1979년 마리니의 사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구 활동을 제약했기 때문이다. 마리니는 1986년 이후에야 브라질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 혁명운동이 진압된 후 라틴아메리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공세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경제, 사회, 이념적 영향이 대학, 연구소 등 학문 세계까지 미치면서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은 한때 유행하던 이론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된 국공립대학에서는 비판적 이론과 사회과학의 재구축이 더욱 어려워졌다.

마리니 이론이 브라질에서 인지도가 낮은 세 번째 이유는 재민주화라는 정치상황 속에서 새롭게 합의된 이념이 부르주아지 주도로 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연구에 대한 포드재단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재단은 재민주화의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기반 확립을 위



해 새로운 학문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 사상의 주된 접근방법이던 학제적 관점을 진부한 것으로 취급하고, 사회과학을 독립적인 개별학문 분야로 분리했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국제관계학 등 특수 분야가 개별적으로 연구됨에 따라 지식 대상인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분절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대한 학문공동체의 개입도 어려워졌다.

카르도주는 포드재단이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역할에 깊숙이 간여했다. 일례로 포드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는 브라질분석기획센터는 기관지 창간호에 카르도주와 세라의 마리니 비판을 담은 「종속의 변증법의 불행」(1978)이라는 20년 전의 논문을 다시 실었다. 카르도주와 세라의 『종속의 변증법』 비판은 마리니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마리니의 답변인 「신발전주의의 이유들」이라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았다. 마리니 이론에 대한 카르도주와 세라의 일방적 비판은 브라질 지식인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학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로널드 H. 칠코트의 『발전과 저발전의 이론』을 비롯한 여러 외국학자의 연구에도 카르도주와 세라의 의견만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

## 5. 『종속의 변증법』의 현재적 의의

『종속의 변증법』은 마리니의 가장 유명한 저서이며, 종속의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한 책이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정치경제학자 및 사회학자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는 오히려 이 책에서 소개된 이론의 심화와 개념의 정교화에 기여했다. 아드리안 소텔로 발렌시아는 『후이 마우루 마리니의 마르크스 사상과 종속이론의 현재성』이라는 저서에서 마리니가 마르크스 이론을 방법론적, 이론적 도구로 활용했듯이 마리니의 이론도 방법론적, 이론적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리니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조주의적 편향을 경계했듯이, 마리니의 『종속의 변증법』에 나타난 제반 이론도 교조주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리니 자신도 1990년대 이후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분석하며, 『종속의 변증법』을 저술할 당시 종속자본주의에서 작동하던 노동초과착취가 최근에는 점차 세계체제의 중심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마리니는 세계화된 자본주의 하에서 특별잉여가치가 과학에 대한 독점, 지식생산에서 고강도 노동의 독점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형태의 독점을 통해 획득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독점의 창출은 국제 노동분업을 재조직화함으로써 중심부 국가 내부의 부르주아지 간 비대칭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의 역동성을 통해 이윤율을 확립할 수 없는 중심부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이제 자국 내에서 노동초과착취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마리니는 『종속의 변증법』을 방법론적, 이론적 도구로서 사용하되 새로운 공간과 시간에 적용해 봄으로써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했다.

다른 한편, 소텔로 발렌시아,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마르틴스 등은 마리니 이론을 계승한 신진 연구자로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상황이나 2001년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및 새로운 정치경제적 현실 등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의 변증법』을 방법론적, 이론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 같이 읽어볼 만한 책

- José Carlos Mariátegui, *7 ensayos de interpretación de la realidad peruana*, 1928.  
 José Serra y Fernando Enrique Cardoso, “Las desventuras de la dialéctica de la dependencia,” 1978.  
 Ruy Mauro Marini, *América Latina: democracia e integración*, 1993.  
 Theotonio Dos Santos, *Imperialismo y dependencia*, 1978.  
 Theotonio Dos Santos, *La teoría de la dependencia: Balance y perspectiva*, 2002.  
 Vânia Bambirra, 『Capitalismo dependiente latinoamericano』, 1974.